



시애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주보

11700 1st Ave. N.E. Seattle, WA 98125 | 사무실 : 206-362-2278 | 연령회 : 206-334-7050
 www.standrewkim.us | Email: standrewkim.us@gmail.com | 발행인 : 김다울 클레멘스
 주임신부: 김다울 클레멘스 | 보좌신부: 박윤기 F. 하비에르 | 이 크리스토폴 수녀 | 박 하비에르 수녀



3분 묵상

한가위, 하늘에 익어 가는 사랑

가을 햇살 머문 들녘마다 당신의 은총이 익어갑니다.
 한 알의 열매 속에 깃든 수많은 날의 사랑을 헤아립니다.

보름달 둥글게 떠오르면 그리운 얼굴들이 마음에 차오르고,
 먼저 떠나신 이들의 따스한 손길이 별빛되어 내려옵니다.

주님, 우리가 거둔 것은 모두 당신께서 베푸신 선물,
 우리의 곁보다 이웃의 빈자리를 먼저 바라보게 하소서.

땅의 곡식이 익어 낫을 기다리듯 우리의 삶도 당신 안에서 무르익어,
 마침내 영원한 안식의 품으로 돌아가는 날,
 이 땅에서 나누었던 사랑만이 하늘의 풍성한 열매가 되어,
 당신의 영원한 잔치상에 우리 모두 다시 모이게 하소서.



50주년 기념 하늘뜨락제 모금 내역

- **쿠폰 판매금: \$42,132**
 Somerset 구역, Mill Creek 구역, Mukilteo 구역,
 Seattle 구역, Mountlake Terrace 구역,
 Redmond 구역, Sammamish 구역, Bellevue 구역,
 Bothell 구역, Shoreline 구역, Lynnwood 구역,
 청년회, OTC 개인 쿠폰 판매,
 뜨락제 당일 개인 쿠폰 구매.
- **하늘 뜨락제 기부금: \$7,400**
 교구 지원금, 심갑순 Lebar, 김 헬레나, 염왕균,
 문 제니퍼, 사마미쉬 구역, 난타팀,뱅크오브호프, 익명.
- **경매 판매금: \$2,555**
 주교님 이콘, 골프장 이용권(2)
 라스베이가스 항공권 경매 판매
 미술전 현금 판매.
- **50주년 기금 모금: \$5,100**
 최주연, 김명자

총 모금액: \$57,187

- **하늘 뜨락제 행사 후원**
 교차로, 한국일보,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본당 복음화 일치를 위한 기도

매일 저녁 9시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바치고

- + 교회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성모 마리아님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 +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들이여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성가 안내

입당성가 : 57 예물준비 성가 : 210, 220 성체성가 : 175, 174 파견성가 : 416

연중 제25주일 (9/20)	토요 저녁(7:00)	주일 아침(8:00)	교중(10:00)	청소년(11:30)	청년(5:30)	미사참례자 합계
미사 참례자	42명	86명	237명	96명	66명	527명



위대한 성녀 제르트루다(1)

예수 성심의 신학자, 위대한 신비가

*지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룬 깊은 영성으로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추구하며,
기도가 곧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 준 성녀.*

13세기의 위대한 신비가

‘위대한 제르트루다’로 불리는 성녀는 독일 헬프타(Helfta) 수도원의 수녀이자 13세기를 대표하는 신비가 중 한 사람이다. 그녀에게 ‘위대한’이라는 칭호가 붙은 것은 신학적 섬세함과 신비적 감수성, 그리고 지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룬 깊은 영성 때문이다.

제르트루다 성녀는 1256년 1월 6일 독일에서 태어났다. 다섯 살이 되던 1261년, 아이슬레벤에 있는 헬프타 수도원 학교에 입학하여 개방적이고 인문주의적인 교육을 받았다. 지적 열망과 뛰어난 재능을 지닌 그녀는 일찍부터 학문의 길을 걸었다.

15세 무렵 학교 교육을 마치고 수도 생활에 들어간 그녀는 베네딕토 성인과 베르나르도 성인의 영성뿐 아니라 음악, 문학, 문법, 예술 등 여러 분야에 능통했으며, 특히 라틴어에 정통했다. 그러나 뛰어난 지적 재능으로 모든 것을 지성에 의존하게 되면서 점차 세속 학문에 몰두하였고, 영적 생활에는 소홀해지기 시작했다.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이 식어 가던 1280년, 그녀는 극심한 영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 그리고 이듬해 예수님의 발현을 체험했다. 예수님께서서는 지성에 매몰된 그녀의 영적 상태를 일깨워 주시는 동시에 깊은 위로를 베풀었다. 이를 통해 제르트루다는 마침내 영적 평온을 되찾았으며, 이후 예수님과의 일치 체험을 통해 더욱 깊은 내적 삶으로 나아갔다.

그녀는 예수님을 신적인 신랑으로 체험했다. 이러한 영적 결합을 통해 깊은 평화를 누리고 삼위일체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신비를 경험했다. 자신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긴 성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심에 깊이 일치하면서 삼위일체 하느님의 생명 안으로 더욱 깊이 들어갔다.

그러나 제르트루다의 영성 생활은 개인적인 신심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녀의 신비적 삶은 성경과 영적 독서, 공동 기도, 시간 전례와 미사를 통해 성숙해졌다. 시간 전례 중에는 하느님의 모습을 신비적으로 바라보거나 삼위일체 하느님에게서



오는 입맞춤을 체험했으며, 미사 중에는 탈혼과 계시적 조명, 사랑의 상처를 경험하기도 했다.

그녀는 전례의 리듬에 따라 살았으며,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전례와 성경 안에서 자신의 신심을 표현하고 풍요롭게 하는 주제와 상징을 찾았으며, 개인적인 기도와 전례 사이에는 어떠한 충돌도 없었다. 오히려 전례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깊이 체험했고, 전례야말로 그리스도와 일치할 수 있는 확실한 길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렇다고 그녀가 감정과 열정, 상상에만 의존했던 것은 아니다. 하느님과의 일치를 이루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향주덕을 실천하며 하느님과 친교를 나누는 삶을 강조했다. 자신의 내적 체험을 언제나 성경에 비추어 해석했으며, 인간의 현실을 무시하는 지나친 감정이나 상상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했다. 그리스도와의 혼인적 일치 역시 단순히 환상적인 체험이 아니라 향주덕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확신했다.

공지 사항

1 추석 합동 위령 미사

● 일시 : 9/27(주일) 연도 9:30. 미사 10:00
추석 합동 위령 미사를 봉헌합니다. 위령미사가 봉헌되는 당일 9/27(주일) 오전 8:00, 11:30 미사는 없고, 오후 5:30 미사는 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 구역 음식 봉사

● 일시 : 9/27 (주일)
● 음식 봉사 : Redmond 구역
● 메뉴 : 추석 한 상 (제육볶음, 나물, 전)

3 미사 안내

성모 신심 미사
● 일시 : 10/3(토) 오전 10:00

4 울뜨레야 월례모임

울뜨레야 10월 월례모임이 있습니다. 본당 꾸르실리스타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시 : 10/3(토) 오전 11:00
● 장소 : 101호실

5 본당 설립 50주년 기념초

본당 설립 50주년 기념초를 못 받으신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가톨릭 성서 모임 그룹 공부

● 모집반 :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복음
● 대상 : 각 전단계 공부를 마친 분
● 기간 : 9월말까지
● 시작 : 그룹별 추후 연락
● 신청 : 본당 사무실
● 문의 : 이도연 제네비에브 206.240.3248

7 한국학교 교사/보조 교사모집

성김대건 한국학교 26-27학년도 교사, 보조교사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학교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8 주일학교 & Youth Group 학생 등록

26-27년도 Faith Formation(주일학교)와 Youth Group 학생 등록을 받습니다. 시애틀 대교구의 명칭 사용에 맞추어 영어 명칭은 Sunday School 대신 Faith Formation이 사용됩니다.

● 주일학교 & YG 시작 : 10/11(주일)
● 등록비 : 1명 \$120 / 2명 \$220 / 3명 \$300
4명 이상 학생 1인당 \$100

★ 3학년 : 첫영성체 준비

★ 7-8학년 : 2년 과정의 견진성사 준비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 9-12학년 : Youth group(임시 운영)으로 추후 프로그램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일학교 문의 : 장우혁 유스티노
(whyek.jang@gmail.com)
박지윤 레이나 (reina.park1011@gmail.com)

● YG 문의 : 김형석 그레고리오
(h.greg.kim@gmail.com)

등록은 QR 코드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당송

온갖 열매 땅에서 거두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이 복을 내리셨네.

제1독서 요엘 2,22-24.26 그르
<타작마당은 곡식으로 가득하리라.>

화답송

◎ 온갖 열매 땅에서 거두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이 복을 내리셨네.

제2독서 묵시 14,13-16
<그들이 한 일이 그들을 따라가리라.>

복음 환호송

◎알렐루야.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알렐루야.

복음 루카 12,15-21
<사람의 생명은 재산에 달려 있지 않다.>

영성체송

주님, 땅은 당신이 내신 열매로 가득하옵니다. 당신은 땅에서 양식을 거두게 하시고, 인간의 마음 흥겹게 하는 술을 주시나이다.

행복하고 풍요로운 **한가위** 되세요!

교우 비즈니스 광고

Styles Law/골든 부동산(대표)	CPA, Cho & Assoc. LLC	박영진 부동산	엠마 스킨 케어
변호사 - Jeremiah Styles 케이스 매니저-서역원 마르띠노 206-335-3090	세금보고/상속.증여/회사설립 해외소득.자산보고/투자이민상담(예약) 206-353-6002 조도현 미카엘	고객 평가 1위 Windermere Real Estate 206-833-7979	스킨 마사지, 경락, 점, 검버섯, 타투 G마트 2층(린우드) 425-525-9955
공간 디자인(Interspace Interior)	시애틀 교구 관할 천주교 묘지 (매장당/납골당) 미리 구입 상담	PearlShining Photo	퀀텟 용자/부동산
블라인드 시공설치 전문 임정옥 마르세리노 206-669-4922	홀리루드 / 겟세마니 박요안나 206-434-5670	알루미늄 페널 사진, 여권사진, 장수사진 반태성(바오로) 206-883-3080 Lynnwood H-Mart 내	퀀텟 모게지 & 유니버스 부동산 대표 토니 장 (안젤로) 206-719-3502
KCR MEDIA GROUP	24시간 한국방송 &TV	IRA/401(K)	김현숙 부동산
교차로 / 블루북 www.wowseattle.com 대표번호 425-712-1236	실시간 방송 11개 채널 KBS/MBC/SBS/케이블 방송 등 425-777-6667	U & T Financial 김용근(Glen) 바실리오 206-880-1190	Windermere Real Estate 주택/콘도전문 206-375-5959
황바로 바오로 CPA	리나 웰니스 클리닉	안영미 글라라 종합보험	이상휘(스테파노) 부동산
세금/회계/회사설립/감사대행 425-742-7675(린우드 대한부인회 옆) info@phcpallc.com	비만/호르몬 치료 비타민 주사 206-485-3112(최주연 리나)	메디케어/오바마케어 생명보험/ 자동차보험/사업체 보험 425-791-0638/253-778-3974	주택 전문 /John L.Scott 425-770-1212
동서 한의원	New York Life	State Farm(첼시 황보 보험)	블루밍 치과
425-773-7979	은퇴연금/상속계획/연금성보험/단기저축 IRA/401K/Rollover/학자금보험/통터케어 김수현 (바울리노) 253-802-2550	자동차, 주택, 생명, 사업보험 22618 Hwy 99 ste. #113 Edmonds 425-329-8396 (부한마켓 옆)	임플란트, 교정, 보철 4215 198th St SW #205 Lynnwood. WA 윤성욱 가브리엘 425-775-1800
아틀라스 척추 의원원 14608 Hwy 99 #309 Lynnwood	강남 한식(구 린우드 한강) 장병돈(미카엘) 503-442-3690	메디아트 패밀리 클리닉	이재호 (베드로 치과)
교통사고 상해, 직장 상해 김진영 요안나 425-742-0332	냉면 - 감자탕 - 순두부 - 도시락 캐터링 - 김치/ 반찬 / 점심배달 19505 44 th Ave. W. Lynnwood	일반 내과, 부인과 진료 425-233-8254 (Bellevue)	임플란트, 레이저치과, 아동치과 206-362-2500 16535 5th Ave. NE Shoreline
정가네 반찬	황명심 데레사, CPA, CFP	굿닥터 카이로프랙틱	그린 리본 프로젝트
반찬, 케터링 전문 206-906-9789 206-372-6481	세금보고, 회계업무 425-373-0380 / 425-802-7999 SabrinaHwang@CPA.com	김병성(프란치스코) 425-775-7550 19514 64th AVE W Suite B Lynnwood	그림을 통해 나를 찾는 과정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수업 213-926-7030(Issaquah)
희망미디어(Hope Media)	New Haven Geriatric Psychiatry	핸디맨	Bridge Tax Services
홈페이지 제작/광고/행사/유튜브 촬영 & 편집/253-256-1854 Kwom.guhun@gmail.com	노인 정신과 206-657-4829 www.newhaven.care	페인트, 벽지, Hardwood Flooring 206-498-8164 임화식 레오	개인 및 자영업자 세무 회계 전문 CPA 김효진(릿다) 425-243-7423 www.bridge-taxservices.com
웅진 코웨이 USA	뉴 해남 식당	BanJi (Korean Speed Dating)	시애틀 폴락 (덕화명란, 간장게장, 시래기)
정수기, 청정기, 비데, 안마의자 렌탈 253-632-0498 토마스 조	11:00 AM~9:30 PM 매주 화요일 휴무 206-367-7843	425-999-1874 김현숙 헬레나 banjiseattle@gmail.com	425-534-9255 www.seattlepollock.com 4215 198th St. SW #204 Lynnwood

미사 시간 및 성사 안내

주일 미사	토요일-7:00(오후), 주일- 8:00(오전), 10:00(오전), 11:30(오전)-YG/주일학교, 5:30(오후)-청년미사
평일 미사	화 / 목 - 오후 7:00, 수 / 금 -오전 10:00
성사 안내	봉성체 : 목요일 (10/29/26) 유아세례 : 오후 3시 토요일 (10/17/26)

레오 14세 교황 성하의

제112차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담화 (2026년 9월 27일)

이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라도(마태 18,10 참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해마다 맞이하는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은 복합적인 이주 현상의 다양한 측면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올해 제112차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주제는 “이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라도”입니다. 이는 이주와 피난의 경험을 직접 겪는 미성년자들과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돌봄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다음과 같은 주님의 약속을 환기시킵니다.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마르 9,37).

강제 이주 미성년자들: 복합적이고 취약한 현실

미성년자들은 전 세계적인 이주의 흐름 안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입니다. 이들은 자기만의 고유한 이야기들을 지니고 우리의 양심을 두드리는 구체적인 얼굴들입니다. 해마다 수백만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전쟁과 빈곤, 폭력과 환경 재난, 그리고 그 밖의 비극적 사유로 고향을 떠나야만 합니다. 안타깝게도, 날이 갈수록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앙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책임은 막중합니다. 이주민 어린이들이 겪는 고통은 주거지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와 형제자매, 친구를 잃은 채, 말로 다할 수 없는 가혹한 폭력 행위들을 목격한 매우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 오랜 기간 떠

어져 지내는 고통을 견디며 가족과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이주의 여정에 나섰음에도 극단적이고 충격적인 처지에 놓이고 마는 미성년자들도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본국 송환 조치로 자기 부모와 헤어지게 된 자녀들의 비극적 상황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이미 너무나도 참혹한 이 상황에 다음과 같은 비극들이 더해집니다. 이주하는 과정에서 맞는 죽음, 인신매매, 착취, 무장 분쟁에 투입하기 위한 미성년자 모집, 성폭력, 강제 결혼, 이주 여정에서 그들이 겪거나 목격하게 되는 잔학 행위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의 존엄이 무수히 많은 방식으로 짓밟힙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취약하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주 아동”을 주제로 한 2017년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교황 담화에서 이렇게 호소하셨습니다. 이주 아동은 “어린이이며 이방인이고 자기방어 수단이 없어서 삼중의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 이유들 때문에 고국을 떠나 자신의 가족과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이들을 도와줄 것을 모든 이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 깊은 어둠 한가운데서도 연대의 빛은 바래지 않습니다. 길 반대쪽으로 지나쳐 버리지 않기로 한 많은 개인과 가정, 시민 단체와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루카 10,29-37 참조). 우리는 이 어린이들이 보금자리의 온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자기 집

의 문을 열어 주는 가정들을 생각합니다. 또한, 현대 센터에서 봉사하는 교육자들을 기억합니다. 이주 여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도시들에서, 이 작은 이들이 받은 보이지 않는 상처들을 치유하고자 날마다 헌신적으로 일하는 자원봉사자들과 구호 활동가들도 떠올려 봅시다. 그들은 자신의 노력을 통하여, 사랑은 무관심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이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 우리 양심을 깊이 일깨우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마태 18,5). 이 말씀은 숫자나 통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그 수를 헤아리지 말라고 초대합니다. 단 한 명이라도 말입니다. 모든 어린이, 모든 인간은 무한한 존엄성을 지닙니다. 저마다 하느님과 비슷하게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고(창세 1,26 참조) 주님의 현존을 드러냅니다. 모든 이주 아동 앞에서 우리는 인류애와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부름받습니다. 그 아동 안에 계시는 주님을 환대하고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오 복음에 나오는 주님의 또 다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부르심은 더욱 절박해집니다. “너희는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듯이 맞아들였다”(마태 25,35).



안타깝게도, 이주 아동들은 그들을 보호하고 지지해 줄 어른들이 없어서 더 쉽게 외면받고 합니다. 그러하기에, 출신 국가에서는 이들을 피난길에 오르게 하는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개입이 필요하고, 경유 국가와 도착 국가에서는 이들에 대한 보호와 환영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아동들의 울음소리는 탈출기에서 들려오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처럼 하느님께 올라갑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작업 감독들 때문에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정녕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하여, 데리고 올라가려고 내려왔다”(탈출 3,7-8). 하느님께서서는 이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들을 해방하시고자 강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양심에 호소하시고 행동을 촉구하십니다. 우리는 무관심한 채 그러한 고통에 익숙해질 수 없습니다.

모든 이가 책임을 다하도록 호소하며

이 어린이들은, 그들 가운데 한 명일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삶 안에서 눈을 뜨고 마음을 열어,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두려움과 꿈에 깊이 귀 기울이고,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통계 수치로 인간을 전락시켜 버리는 무관심을 극복하라고 부름받습니다. 이는 이주 아동이 놓인 ‘이주민’이라는 처지를 고려하기에 앞서 그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생명권과 교육권과 같은 기본권을 보호하며, 신체적, 정신적, 영적, 도덕적, 사회적 측면에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는 생활 수준을 보장

하라는 초대입니다.

이 어린이들은, 그들 가운데 한 명일지라도,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삶 안에서 환대를 추상적 개념이 아닌 확고한 사목적 실천으로 옮기도록 부름받습니다. 이 임무를 그저 고유한 은사를 지닌 기관이나 단체에만 맡겨 둘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구체적인 얼굴들 앞에서, 그리스도인 공동체 전체는 이 어린이들을 자신의 아들딸로 여기고 그들 각자의 구체적 인 이야기에 가까이 다가가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난민과 이주민의 통합을 증진하고 그들을 교회 가족의 온전한 일원으로 소중히 여기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원조한다는 사고방식을 뛰어넘어 개인 맞춤형 여정을 포함한 새로운 교육적 영적 여정들을 육성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주민 자녀들에게도 자주 영향을 미치는 고독, 고립, 배척을 예방하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과 이주해 온 젊은이들이 상호 존중과 연대와 우정의 길을 걸으며 서로를 지지할 수 있는 만남과 통합의 기회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이들 가운데 단 한 명일지라도, 서로 다른 종교들의 지평에서 바라볼 때,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이들의 취약함은 종교적 경계를 넘어 인도주의적이고 영적인 공동의 책임으로 우리를 묶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구체적인 종교 간 대화를 위한 비옥한 토양이 되고, 그 안에서 신앙인들은 저마다 초월에 대한 고유한 감각을 바탕으로 보호망을 촘촘히 엮어 나가는 데에 협력합니다. 신앙 공동체들은 모든 소년 소녀가 고유의 문화 정체성 안에서 존중받고 가치를 인정받는 공간들을 만들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극단주의 집단들

이 주도하는 급진화에 휩쓸릴 위험을 예방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한 명의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은 그 어린이 안에 새겨진 하느님 모습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어린이들은, 그들 가운데 한 명일지라도,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민 사회의 제도적 맥락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이라는 원칙을 재천명하라고 부름받습니다. 공공 단체와 민간단체는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의 보호와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법적 보호 수단을 마련하고, 가족 재결합을 촉진하며, 가족의 분리로 말미암은 정신적 외상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점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논의의 초점이 단순한 이주 관리에서 벗어나 온전하고 즉각적인 인권 보호로 옮겨져야 하고, “이주하는 사람들에게 보호와 환대, 진정한 통합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지원하는 효과적인 대응책”(레오 14세, 스페인 의회에서 한 연설, 마드리드, 2026.6.8.)을 채택해야 합니다.

이주민과 난민 어린이들을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모성적 보호에 맡겨 드립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요셉 성인과 아기 예수님과 함께 헤로데의 잔혹한 폭력과 이집트로의 피난이라는 비극을 겪으셨습니다(마태 2,13-15 참조). 성모님께서 이주민과 난민 어린이들의 발걸음에 동행하시고, 우리 공동체들이 복음의 살아 있고 신뢰할 만한 표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빕니다.

바티칸에서

2026년 8월 11일

아시시의 성녀 클라라 동정 기념일

레오 14세 교황